

제2022신방주호 화재사고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3일(목) 오전,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동방 약 2.3해리 해상에서 근해통발 제2022신방주호 화재 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“해경 등과 협조하여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현재, 해양경찰청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화재 진압과 구조작업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5. 2.13.(목) 시간미상,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동방 약 2.3해리 해상에서 근해통발 제2022신방주호 화재

* 제2022신방주호(34톤, 부산 선적), 11명 승선

△ (09시 28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경계(Orange)” 발령

△ (현재 피해 현황) 상세사항 확인 중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50)
		담당자	사무관	이강은 (044-200-5526)